

## 런던 한인타운에 탈북자 500명 거주 '리틀평양' 등장

NHK 심층보도, 한국식당·한국인 운영 슈퍼서 일하며 정착  
한국으로 왔다 '탈남'한 사람도, '영어교육' 지원단체도 등장

영국 런던의 한인타운으로 불리는 뉴몰든역 일대에 탈북자 500여명이 정착하면서 '리틀 평양'이 생겨났다고 NHK가 24일 보도했다.

1970년대부터 한국인이 많이 거주, 말이 통하는 것은 물론 문화적으로도 생활이 쉬워 2000년대부터 탈북자가 다수 몰리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은 500여명의 탈북자가 거주하고 있다.

역 앞 거리에는 낫익은 빨간색 2층 버스가 다니고 거리 곳곳에서 한글 간판을 찾아볼 수 있다.

NHK 취재팀이 도로변의 한 한국 식당에 들어가 점원에게 "북한에서 온 사람을 아느냐"고 묻자 "우리 식당에도 북한 출신이 있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식당안을 둘러보는데 한 40

대 남자가 가게 안으로 들어섰다. 종업원이 "저 사람도 북한에서 온 사람"이라고 일러줬다.

그에게 영국 생활이 어떠냐고 묻자 웃으면서 "나는 행복(행복)하다"고 영어로 대답했다. 더 자세히 물으려고 하자 입을 다물었다. '리틀 평양'에는 한국계 슈퍼에서 일하는 탈북자도 있지만 깊은 이야기는 하지 않으려 한다고 한다.

영국에 정착한 탈북자의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리틀 평양에 사는 김주일 씨를 만났다. 국경지대의 강을 헤엄쳐 건너 중국으로 탈출한 그는 동남아시아를 거쳐 12년전 영국에 왔다. 지금은 영국을 거점으로 북한의 인권실태 등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다.

그가 영국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북한에 남은 가족 때문이다. 북한 체제에 의문을 느껴 외국으로 나오려고 했지만 북한이 적으로 간주하는 미국 등지로 가면 가족이 위험하다고 판단했다. 북한과의 대립이 미국 만큼 심각하지 않은 유럽을 목표로 정했다. 그는 지금의 생활에 만족한다며 "다른 어느 나라에 사는 탈북자 보다 좋은 환경"이라고 밝은 표정으로 말했다.

민주주의가 발달한 영국에 살면서 "북한의 상황을 밖에서부터 바꿔가고 싶다"고 생각한 게 현재의 활동으로 이어졌다.

탈북자가 영국을 목표로 삼는 이유는 여러가지다. 일단 한국으로 빠져 나왔지만 '탈남(脫南)' (3면으로 이어짐)



런던 중심가에서 기차로 20분 거리에 있는 뉴몰든역

6월 30일 한미 회담  
트럼프, DMZ 방문 검토

» 4

서유럽 때 이른 '폭염'  
40도 넘는 '가마솥더위' 예상

» 5

존슨, 양자대결서 힌트 압도  
여론조사 결과

» 8

영국 학생들 간 괴롭힘 심각  
'5년 전보다 2배 늘어'

» 10

또 쇼트트랙  
성희룡 사건 대표팀 전원 선수촌 퇴출

» 30

**KIB보험**  
27년 전통의 믿을 수 있는 보험 전문 브로커  
자동차 · 집/가재 · 의료 · 상업 보험 등  
JEIB Group : Lloyd's broker & FCA 등록  
**www.kib.co.uk**  
☎ 020 7847 8630 info@kib.co.uk  
1st Fl, 3 London Wall Buildings, London EC2M 5PD

**푸른농원**  
Green Farm  
'푸른농원' 상표를 확인하세요!  
**떡, 콩나물 전문**  
☎ 07894 330 988/020 8417 1123

오랜 전통과 신뢰 SINCE 1988  
**원한의원**  
British Acupuncture Council  
원장 김원규 한약/침/보약/뜸  
MRCHM 한의사 MBACC 영국국가공인 침구사  
☎ 020 8949 3888 / 07710 627 333  
56 Cambridge Rd, New Malden KT3 3QL

**낙원푸드**  
행사 · 파티 · 모임 음식,  
김밥 · 도시락 전문 주문받습니다  
☎ 020 8949 6474  
07920 145 667  
89 Kingston Road, New Malden KT3 3PA

**Murray Hay Solicitors**  
박정현 변호사  
☎ 020 8704 4541  
info@murrayhay.co.uk  
www.murrayhay.co.uk  
3 Eastfields Avenue, Riverside Quarter, London SW18 1GN

**한국으로 물건을 보내려면**  
세관/유럽 배송 문의 환영  
**www.lpouk.com**  
런던우체국  
☎ 020 8569 2588 / 0789 790 2044

워크비자/스폰서쉽  
솔렙비자/사업비자  
결혼비자/영주권/시민권  
공인 영국비자 수속기관  
**영국이민센터**  
☎ 020 8949 5588  
ukemin@hotmail.com / www.ukimin.com  
151 High Street, New Malden, Surrey KT3 4BH

**대한보험**  
On-Line 보험? 대한보험과 비교하시죠!  
한국 무사고 경력 100% 인정  
☎ 0208 715 0120  
jinnydaehan@gmail.com  
63 High St, New Malden KT3 4BT

정직하고 성실한  
**보라여행**  
항공권 & 여행 전문  
☎ 020 8241 7987 / 8949 1279  
07804 779 401  
**www.boratravel.com**

**YAMI**  
뉴몰든 하이스트리트 중심에 위치한 야미  
단체석 · 별실(룸) 완비 한식당  
☎ 020 8949 0069  
07472 075 727  
69 High St, New Malden KT3 4BT

**이민법 전문**  
Ashfield Solicitors  
체류기간 경과, 비자거절,  
항소기간, 불법체류 고민이세요?  
이민법관련 최선의 해결책과  
조언을 드리는 전문가를 만나십시오!  
첫 상담은 무료입니다.  
Specialist in Regularising overstayers,  
any visa extensions, Human Rights  
& immigration appeals  
Tel: 020 7835 1297  
info@ashfieldsolicitors.com  
3rd Floor, 109 Gloucester Road,  
South Kensington, London SW7 4SS  
지하철역 Gloucester Rd on Piccadilly,  
Circle & District Lines 역 건너편 도보 1분  
Ashfield Solicitors is authorised and regulated  
by the Solicitors Regulation Authority - SRA Number 593342

**한진택배**  
귀국 이사 화물,  
소형 소포 전세계 배송  
☎ 020 8867 0001  
07504 861 771  
e-mail admin@worldlinkexp.com

**Centre Point Food Store**  
Korean & Japanese Supermarket  
**www.cpfs.co.uk**  
Tel 020 7836 9860  
020 7240 6147  
73 New Oxford St, London WC1A 1DG

**샘물 정수기**  
SAM'S WATER & CO.  
렌탈 / 판매 / 필터 서비스  
정직한 물을 선물합니다  
☎ 07957 814 118 / 07956 540 527  
(11면 참조)

**하우스 To Let**  
• 4 bed town house £2150pcm  
• Private Rd, Kingston Hill, Kingston KT2  
• 리치몬드파크, 노비튼역, 킹스톤역 근접  
• 바로 입주 가능  
문의 07909 977 585 (Mrs 오)  
email: ranjou@hotmail.co.uk

★★★★★ KOREAN RESTAURANT  
**강남**  
도카닉수육  
☎ 020 8942 5243  
\*뉴몰든 High St, 바클레이 건너편

**서라벌**  
SORABOL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한국 맛의 자부심  
☎ 020 8942 2334

**유코쉬핑**  
Shipping Ltd.  
해외이사 / 항공·해상 택배 / 상업화물  
☎ 020 8890 9086 / 07837 203 341

영국비자센터  
www.IMIN4U.com  
영국정부승인 No. F201601020  
스폰서쉽/취업비자/영주권/  
시민권/사업비자/  
솔렙/배우자 비자/학생비자/  
info@imin4u.com  
020 3371 1033, 07886 665 921



# 총리 유력 존슨, 노딜 브렉시트 재차 강조 “진지하게 준비”

양자 대결에서 여유 있게 앞서

테리사 메이 총리의 후임자를 뽑을 영국의 집권 보수당 당대표 경선에서 승리가 유력한 보리스 존슨 전 외무장관이 ‘노딜’(no deal) 브렉시트(Brexit) 강행에 대한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노딜’ 브렉시트는 영국이 아무런 협정을 맺지 못하고 유럽연합(EU)을 탈퇴하는 것을 일컫는다.

존슨 전 장관은 24일 “나의 약속은 10월 31일 헬러윈(데이)에 EU에서 나가는 것”이라며 EU와 합의를 못 하더라도 10월에 탈퇴할 수 있도록 진지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영국과 EU 간 브렉시트 합의안이 영국 의회에서 잇따라 제동이 걸림



에 따라 EU는 브렉시트를 오는 10월 31일까지 연기해 놓는 상태다.

존슨은 “우리가 얼마나 진지한지 친구들과 파트너들에게 이해시키는 방법은 오랫동안 우리를 거대한 구름 속에 가둬놓은 패배주의와 비관적 태도를 버리고 노딜 결과에 대해 자신 있고 진지하게 준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존슨은 노딜 브렉시트를 원하지는 않지만, 영국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이를 협상 테이블 위에 올려놓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존슨은 또 영국이 EU를 떠날 때 내야 하는 ‘이혼 합의금’ 390억 파운드(약 57조4천억원)와 관련, 지급 시

기와 방법에 대해 ‘창의적 모호성’(creative ambiguity)이 필요하다고 밝혀 합의 없는 탈퇴에도 납부를 요구하는 EU의 반발을 외면했다.

이밖에 존슨은 EU와의 합의에 큰 걸림돌인 영국령 북아일랜드와 EU 회원국 아일랜드 간 국경 통행에 대한 안전장치, 즉 백스톱(backstop)에 변화를 주거나 포기하는 것이 결국 성공으로 갈 수 있는 길이라는 뜻도 밝혔다.

보수당 당대표는 약 16만명에 달하는 전체 보수당원의 우편 투표로 결정되며, 새 당대표는 다음 달 23일 최종 발표된다.

〈관계기사 4, 8, 10면〉연합뉴스=본지특약

〈1면에서 이어짐〉

해 영국으로 온 사람들은 비슷하면서도 다른 면이 많은 한국사회에 적응하지 못했고 한국인들이 ‘북에서 온 사람’으로 보는 데서도 스트레스를 느꼈다고 한다.

영국에서는 북이건, 남이건 상관 없이 ‘코리안’으로 보는 경우가 많이 ‘북한’을 의식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자녀에게 영어로 교육을 받게 하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다.

영국은 2000년에 북한과 수교했다. 서유럽에서는 가장 빨리 북한과 외교관계를 수립한 국가의 하나다. 영국은 평양에, 북한은 런던에 각각

대사관을 두고 있다. 영국뿐만 아니라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북한과 국교를 맺고 있다. 유럽도 미국, 일본과 마찬가지로 북한핵과 인권문제에 강경한 입장이지만 정기적으로 회합을 하거나 현지에 대사관을 설치하는 등 강온 양면정책을 유지하면서 북한에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2001년에는 유럽연합(EU)대표단이 평양을 방문했을 때는 김정일 당시 국방위원장이 회담에서 미사일 발사실험 일시 동결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희망을 안고 영국으로 건너와도 전혀 다른 문화 속에서 살기는 쉽지

않다. 가장 큰 벽은 언어다. 영어를 잘 못하면 일할 곳을 찾기 어렵고 병원 등 일상생활의 모든 게 어렵다. 작년에 뉴 몰든에 사는 탈북자의 고뇌를 그린 ‘리틀 평양’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개봉됐다. 영화는 탈북자인 남성이 고향에 남은 가족을 생각하거나 영국에서 자라 한국어를 못하는 어린이가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 등을 적나라하게 그려 호평을 받았다.

리틀 평양에서는 탈북자 지원 활동도 시작되고 있다. 2017년 활동을 시작한 새로운 지원단체 ‘Connect:North Korea’는 탈북자

들의 가장 큰 난관인 영어교육에 힘을 쏟고 있다.

생활상담과 카운셀링 외에 탈북자의 경험과 현실을 알리는 활동도 하고 있다. 탈북자 출신으로 이 단체 멤버인 한 여성은 “나 자신도 처음엔 영어를 몰라 아이가 학교에서 받아오는 프린트물 등 교육은 물론 병원이나 전기문제 같은 일상생활도 크게 어려웠다”고 회고했다.

이어 “다른 나라 난민에 비해 영국 탈북자는 역사가 짧고 지원체제도 갖춰져 있지않은 만큼 이런 지원단체의 존재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본지특약

## 코리아위클리

The Korean Weekly

■ 대표·발행인 The Editor  
신정훈 J. H. Shin

■ 주 소 : Cavendish House  
Cavendish Avenue  
New Malden  
Surrey UK  
KT3 6QQ

■ 전 화 : +44 (020) 8336 1493

kowekly@kowekly.co.uk  
www.kowekly.co.uk

연합뉴스=본지특약  
기사·사진 콘텐츠 사용 허가

**연합뉴스**  
바른언론 빠른뉴스  
yonhapnews.co.kr

영국 대표 동포지 코리아위클리는

대한민국의 기간통신사인

연합뉴스와 뉴스 제공 및

사용에 관한 정식계약을 맺어

독자 여러분께 다양한 기사와

선명한 사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Online  
구인광고

www.kowekly.co.uk



지금 확인하세요!



Murray Hay Solicitors

박정현 변호사

020 8704 4541 info@murrayhay.co.uk www.murrayhay.co.uk

Property Law

주택/상가 : 매매 임대 계약연장

Planning Permission 어필 항소

집/건물/토지 법률 상담

가정법/민사

유언/신탁

상속법 등

3 Eastfields Avenue, Riverside Quarter, London SW18 1GN

## KS 종합건축



| Building                                                                                  | Gas & Plumbing                                                                                             | Refurbishment                                                                                 |
|-------------------------------------------------------------------------------------------|------------------------------------------------------------------------------------------------------------|-----------------------------------------------------------------------------------------------|
| Extension<br>Loft Conversion<br>New Building<br>Restaurant<br>(주방설계, 에어덕터, 에어컨)<br>Office | Under Heating 전문<br>Install Boiler<br>Gas Work<br>*영국 자격증 소지*<br>(Domestic/Commercial/<br>Gas Certificate) | Electricity<br>Window<br>(설치, 교체, 수리)<br>Plastering & Paint<br>Bathroom & Kitchen<br>Flooring |

☎ 07749 041 126 BKL7777@gma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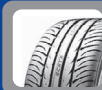
▶ 영업시간 안내 월~금요일 9~6시, 토요일 9~1시

# K & P Motors

## 차량점검 및 정비 전문

에어콘 가스  
리필 서비스

MOT  
£27.50



타이어 점검 / 교환 / 밸런스 / 펑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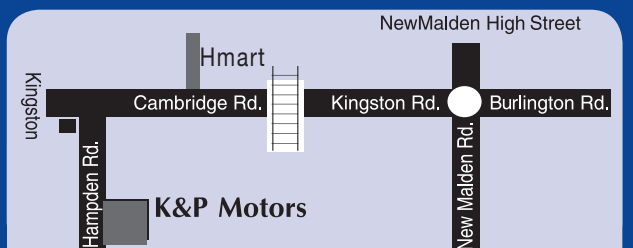
15년 타이어 전문연구 및 기술경력



배터리 / 브레이크 / 에어컨 가스 주입



수리, 점검 / Full-Service / MOT



Unit 4, Hampden Road Kingston KT1 3LG  
020 8549 3838 (Off Cambridge Road)

정직하고 성실하게 고객 여러분의 차량을 책임집니다. 컴퓨터를 이용한 효율적 차량 및 고객 관리로 선진화된 서비스를 경험하세요. 넓고 깨끗한 자체 정비공장이 여러분의 신뢰를 더해갑니다.

대표 김성호 (전 금호타이어 기술팀장)

KUMHO TYRES



하숙 · 민박

## 조은 하숙민박 (구 이모네)

 **조은 하숙민박 (구 이모네)**  
 - 뉴물든 역 도보 1분거리 - 출장, 여행, 친지, 방문객, 최적  
 시설, 최적 위치, 인터넷, 각방 TV, 가구 완비, 한식제공,  
 편안한 거실, 단체 고급 가능  
 ☎ 07817 921 280 / 07796 145 038

 미소하우스 (miso house)

뉴몰든역 3분거리의 고급 주택, 카드결제 가능, 출장 주재 연수,  
집 구하기전 잠시, 최고 욕실룸, 넓은 가족실, 고속 인터넷, 세탁,  
조식 한정식, [www.misolondon.com](http://www.misolondon.com) 카톡 ID: misohouse  
☎ 0782 333 6807 / 0208 288 9251

친절히 모십니다

**미니캡**

**스마일캡**

공항픽업 서비스, 간단한 학생 이사  
친절히 모십니다

 07961 778 296

믿을 수 있는 24시간 캡, 공항 · 시내 · 장거리 · 명품아울렛 픽업,  
학생이사 · 대리운전 · 관광가이드, 벤츠 E-Class 및 8인승 밴  
☎ 07879 4051 40

## 코리안윌클리

코리안 윌클리는 본지사 관련된 웹사이트에 실린 광고주의 정체를 어느정도 확인을 합니다. 그러나 광고주나 광고의 정확성이나 신뢰성에 대해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으며, 서비스 또는 서비스와 관련된 광고, 기타 정보에 대해서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습니다. 본지에 실린 광고에 대한 신뢰 여부는 전적으로 사용자의 책임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코리안 윌클리는 광고주와 광고내용, 연락, 제물, 서비스와 관련하여 직접, 간접, 부수적, 징벌적, 파생적인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독자들이 본지에 실린 광고주와 광고 내용 연락이나 제물, 서비스 구입 혹은 계약 이전에 나름대로의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note that any adverts contained in Korean Weekly does not imply a recommendation or endorsement or approval by Korean Weekly Newspaper of any advertising claims or of the advertiser, its product, or services. Korean Weekly reserves the right to accept or reject any advertisement submitted for its newspaper publications and on its websites. While Korean Weekly employs its best endeavours to confirm the identity of the advertisers, it does not attempt to investigate or verify claims made in advertisements appearing in its Newspaper publications and on its websites. Korean Weekly disclaims any liability whatsoever in connection with advertising appearing in its newspaper and on its websites.”

◆클라리넷 레슨

독일국립음대 석사(Diplom)  
국내 음대 및 콘서트바토리 출강역임  
독주회 및 다양한 실내악단  
다수 오케스트라 수석역임  
전공 및 취미 환영.

기초부터 탄탄히 레슨합니다.

☎ 07954 091173

**코리안유클리** 광고비는

- 가격은 제목과 연락처를 포함한 모든 광고내용이 80자(한글) 이내이며 연속광고로 게재할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초과시 추가요금이 발생합니다.
- 연속광고 기간중 내용을 수정하시면 게재횟수가 수정시마다 1회씩 줄어듭니다.
- 광고 게재신청, 수정·중단 요청은 우편, 이메일만 가능합니다. 전화로는 접수받지 않습니다.

직불카드(debit card)나 신용카드(credit card)  
결제할 수 있습니다.

**코리안위클리** 집에서 받아보세요



▶신청방법:  
받으실 분 주소와 함께 원하시는 단위의 구독료(수표 혹은 카드  
번호)를 보내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  
The Korean Weekly, Cavendish House,  
Cavendish Ave., New Malden, Surrey, KT3 6QQ

4개월(16주): £26 / 6개월(26주): £36 / 1년(52주): £57

① 이메일 : 광고내용과 카드(credit card, debit card) 번호, 유효기간, security code를 이메일 [koweekly@koweekly.co.uk](mailto:koweekly@koweekly.co.uk)로 알려주세요.

② 우편 : 광고내용과 광고비(수표 payable to The Korean Weekly 또는 Postal Order)를 함께 보내시면 됩니다.  
- 보내실 곳 : The Korean Weekly (생활광고)  
Cavendish House, Cavendish Avenue, New Malden, Surrey KT3 6QQ

③ 마감 : 월요일 낮 12시 (수요일자 신문발행 게재)

④ 접수된 광고 또는 연속광고 중단시 환불해 드리지 않습니다.

⑤ 지면광고는 코리안위클리 웹사이트 [koweekly.co.uk](http://koweekly.co.uk)에 무료 게재합니다. (구인광고 제외)

# 재영한인 게시판

## ■ 민주평통 해외자문위원 후보자 모집

민주평통 자문위원에 관심있는 분들은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자문위원 임기: 2년 (2019.09.01 ~ 2021. 08. 31)
- ◆해외자문위원 활동사항: 한반도 통일에 관한 동포사회의 여론 수렴 및 합의 도출, 범민족적 의지와 역량 결집, 거주국에서 공공 외교 수행 등
- ◆재외동포 참여 공모제: 국민 참여기회 확대를 목적으로 민주평통 사무처에 직접 해외 자문위원 후보자를 신청하는 제도로 재외동포 참여공모제는 금년도에 처음 실시되는 제도이며, 재외공관장 추천과는 별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 ① 배정인원 : 300명(세계 각국 배정)
- ② 자격조건 : 만 19세 이상, 해외에 거주지를 둔 재외동포
- ③ 공모기간 : 2019. 06. 10 ~ 07. 04 (서류 도착일 기준)
- ④ 지원방법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홈페이지(www.nuac.go.kr) 공지사항에 게시된 공고문 참고
- ⑤ 우편제출처 : (04605)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8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해외지역과 <제 19기 해외자문위원 위촉 공모제 담당자>
- ◆문의 : 주영국 한국대사관 020 7227 5500

## ■ 한국 영화 탄생 100주년 기념 K-팩터 오디션 개최

한국 영화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여 올해로 4회를 맞이하는 런던아시아영화제는 오는 10월말에 열릴 영화제 기간전인 3월부터 9월까지 장기간에 걸쳐 런던 시내 전역을 누비며 한국영화 알리기에 나섰다. 지난 23일 한국 영화 100주년을 기념하는 시리즈 <K-CINEMA 100> 행사의 일환으로 런던 웨스트엔드의 심장 레스터스퀘어에 위치한 유명 클럽(더 피아노 워크)에서 하이트진로사와 공동 주관으로 케이팝 오디션 케이팩터 <K-FACTOR> 대회를 열고 '한여름밤의 소주' 파티를 개최했다.

런던아시아영화제 전혜정 집행위원장은 "유럽영화제들은 유럽 주류회사와 오랜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다. 아시아영화제에는 이번 한국영화 100주년 기념 행사 일환으로 하이트진로와 파트너십을 통해 좋은 행사를 마련한 만큼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런던아시아영화제는 <K-CINEMA 100>이란 특별 프로그램을 통해 연중 장르별 한국 영화를 고전부터 신작까지 소개하고 있다. 지난 6월21일에는 영국국립초상화 갤러리에서 <관상> 상영을 하고 메디힐 후원으로 BTS 에디션 마스크 팩을 관객들에게 선물로 증정한 바 있다. 오는 7월 27일~28일 주말에는 레스터스퀘어에서 오픈에어 섬머 스크리닝을 통해 한국영화 4편이 야외에서 최초로 상영될 예정이다. <글 제공: 런던아시아영화제>

주영국  
대한민국 대사관

※ 영국 경찰 긴급전화 : 999 또는 101  
※ 주영대사관 : +44-(0)20-7227-5500(주간),  
+44-(0)7876-506-895(야간)  
※ 영사콜센터 : +82-(0)2-3210-0404

## ■ 영국 입국시 자동입국심사 제도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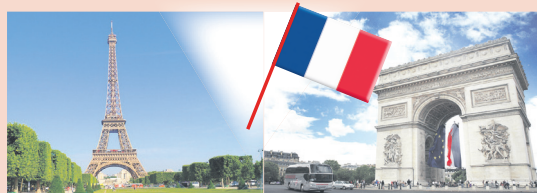
2019.5.20(월)부터 우리 국민 대상 자동입국심사(E-passport gate)제도가 영국 전역에서 공식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연간 40.6만명(2017년말 기준)에 이르는 한국인 여행객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입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국민들은 입국 서류(landing card) 작성 이 필요 없게 되었으며, 만18세 이상의 경우 입국장내 위치한 E-passport gate 부스를 통해 이민국 직원과의 대면 인터뷰 없이 여권 스캔 → 안면인식 등 간단한 절차만 실행하면 됩니다. 단, 만12세~17세의 경우 성인 동반시에만 자동입국게이트 이용이 가능하며, 12세가 안 되는 어린이는 성인과 함께 영국 국민들이 이용하는 내국민 심사라인을 이용해야 함을 참고바랍니다. 한편, 사증 발급이 요구되는 입국 목적의 경우에는 이민국 직원 대면 인터뷰를 거쳐 입국 도장을 받아야 합니다.

- ◆ 이민국 직원 대면 인터뷰 및 입국 도장 필요 대상
  - 단기 교육을 위해 방문하는 승객(최대 6개월 단기 학생 비자 취득이 필요한 경우)
  - 노동 허가서 소지자
  - Tier5 사증 카테고리중 스포츠, 예술 후원 증명서 소지자
  - 영국에서 영구 결함을 모색하는 EEA 국적자의 가족 구성원
- ◆문의 : 주영국대사관 영사과(020 7227 5500)

## ■ <내가 한국바로알리의 주인공> 에세이 공모

한국학중앙연구원 국제교류처에서 세계 속의 한국 이미지를 개선하고 한국이해자료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2019 <내가 한국바로알리의 주인공>에세이를 아래와 같이 공모합니다.

- ◆공모 주제 : 외국에서 보는 한국 이미지
- ◆응모 자격 : 외국인, 재외국민 ◆제출 언어: 한국어 또는 영어 ◆제출 분량: A4 3매 내외
- ◆제출 방법: 한국학중앙연구원 홈페이지 또는 국제교류처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 한 후 작성하여 이메일로 제출 (highspirit@aks.ac.kr)
- ◆관련 사이트: www.aks.ac.kr 또는 www.ikorea.ac.kr/korean
- ◆시상 : 상금과 상품, 최우수상(2), 우수상(4), 장려상(6)
- ◆접수 : 2019. 6. 1.(토) ~ 7. 31.(수) ◆발표: 9. 20.(금) (예정) www.ikorea.ac.kr/korean 공지
- ◆문의: 이메일: highspirit@aks.ac.kr +82-31-739-9731, 9725



## 프랑스 <98회>

자유 · 평등 · 박애의 정신,  
낭만과 예술의 나라!

남들에게 따돌림받지 않고 어울려 살기 위해서는 자기 성격을 죽이고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 하는 '수순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이 이야기는 결국 '남들과 달라서는 안 된다'는 얘기도 되지 않겠어?

'남들과 달라서는 안 된다'는 동양 사람들의 생각은

웃차림 하나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애, 수수하게 입지 야하게 그게 뭐냐?

길거리에서 비슷한 웃차림을 한 사람이 눈에 많이 띄면 안심이 되고

남들이 자기 웃차림을 자주 쳐다보면 이거 내 옷이 너무 튀냐?

'남들과 달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뿌리박혀 있으면서도

남에게 무언가 자기를 돋보이고 싶고,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것은 동양 사람도 마찬가지라...

어떻게 하면 남과 다르게 나를 돋보일까... 궁리하게 되지.

남들과 달라서는 안 된다면서 남과 다르게 보일 궁리를 하다니 정말 앞뒤가 안 맞는 얘이지?

# 만나라 이웃나라

이원복 글 · 그림

남들과 달라서는 안 되지만, 남들과는 다르게 돋보일 방법...

가령 넥타이를 고를 때, 색깔이 너무 야하면 취미가 저질이라고 욕할 거고...

남들과 다르면서도 남의 욕을 먹지 않고, 오히려 부러움을 살 수 있는 것... 즉 남이 갖지 못한 것... 그것은...

비싼 고급 상품이다!

그러나 어떻게 남들이 내가 맨 넥타이가 고급이란 걸 알아내지?

누구나 첫눈에 알아낼 수 있는 유명 디자이너의 이름이 새겨진 고급 넥타이! 더구나 우리 나라에선 구하기 힘든 외국제로...

유명 디자이너의 이름이 새겨진 고급 넥타이... 그건 당연히 파리의 것이어야지!

그래서 한 사람이 파리의 유명 고급 넥타이를 매게 되면

남들의 부러움을 받게 되고 그는 조그만 만족을 얻게 되지.

이제 얼마나 비싼 건데, 아무나 매는 건 줄 아냐?

이로써 그는 남들과 조금 다른 사람이 되고 남들은 그와 다른 사람이 된 거지.

즉 '남과 달라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깨진 거야.

아니, 잡돌이가 됐는데 나라고 못 뭘 게 뭐 있어?

계속